

목 차

📁	모빌리티 동향	11
해외	- “달리는 열차와 충돌할 뻔”... 美서 테슬라 ‘완전자율주행’ 논란	11
정책	- 국토부, 무인자율주행차 운행허가... 상암동서 시속 50km 가능	12
	- 자율주행차 사고때 누가 책임? 연내 기준 만든다	13
	- 국토교통부, UAM 상용화 본격 준비 위한 글로벌 협력	14
	- 경찰청, 강릉시와 손잡고 ‘실시간 신호정보 제공사업’ 본격 추진	15
	- 보행자, 화물차·이륜차 안전 강화로 사망자 줄인다	16
	- 성남시,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위해 전문기업 3곳과 업무협약	17
	- 내년도 상용화 목표 UAM 인프라 구축 본격화...이착륙장 입지 검토 착수	18
	- KTL, 헝가리 국가드론협의체와 미래항공 모빌리티 시험평가 '맞손'	19
기업	- 카카오모빌리티, '한국형 UAM 서비스' 상용화 추진	20
	- KT-안양시, 자율주행버스 '주야로' 시범 운영...모빌리티 AX기술 활용	21

“달리는 열차와 충돌할 뻔”... 美서 테슬라 ‘완전자율주행’ 논란

- 미국에서 테슬라 차량이 주행 보조 시스템인 완전자율주행(FSD·Full-Self Driving)을 켜 채 주행하다가 전방의 철로를 감지하지 못해 열차와 충돌할 뻔한 사건이 발생
 - 해당 사고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테슬라의 FSD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
 - 미국 NBC 뉴스에 따르면, 사고 운전자는 “테슬라의 FSD 기술에 문제가 있거나, 최소한 자신의 차량에 탑재된 FSD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있다”고 주장
 - 해당 사고 영상에서 테슬라 차량은 전방 도로를 가로지르는 철로에 기차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렸고, 이후 기차와 충돌 직전 오른쪽으로 방향을 튼 해당 차량은 건널목 차단기에 부딪힌 뒤 가까스로 멈춤

< 주행 보조 시스템인 완전자율주행을 사용하고 있는 테슬라 차량 (출처:로이터) >



-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운전자에게 차량 제어 실패를 문제 삼아 175달러(약 24만 원)의 벌금을 부과
 - 경찰의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안개가 자욱한 상태였지만, 사고 시점 기준 최소 5초 전에 건널목 신호등의 빨간불이 깜박이는 것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에 찍혔음
- 테슬라의 FSD(Full-Self Driving)는 ‘완전히 스스로 주행한다’는 뜻을 담고 있지만, 실상은 운전자의 상시 개입이 필요한 주행 보조 기능으로 구매자에게 혼동을 줄 여지가 있는 상황

출처 : 조선일보, “달리는 열차와 충돌할 뻔”... 美서 테슬라 ‘완전자율주행’ 논란 (2024.5.29.)

국토부, 무인자율주행차 운행허가... 상암동서 시속 50km 가능

- 국내에서도 무인 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를 정상속도로 달릴 수 있게 될 전망
 -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자율주행 기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 운행이 허가됨
 - 그동안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하거나 극저속(10km/h), 특수목적형만 가능했던 상황
- 임시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제네시스 G90이며, 비상자동제동,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·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
 - 이 차량은 최고 시속 50km로 서울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영지구 중 3.2km 순환구간을 실증하게 되며,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운행가능 영역에서 단계적인 검증을 거쳐야 함
 - 검증 1단계로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2개월 간 자율주행을 실시하고, 2단계로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거나 외부 관리인원을 배치하여 2개월 간 추가로 시험함
 - 이후 운행 실적과 무인요건 심사를 통과하면 완전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짐

< 일반도로 자료사진 >



- 박진호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장, “20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기술·서비스를 실증했는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”고 언급

출처 : 서울와이어, 국토부, 무인자율주행차 운행허가... 상암동서 시속 50km 가능 (2024.6.13.)

자율주행차 사고때 누가 책임? 연내 기준 만든다

- 정부, 자율주행 차량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예정
 - 그동안 자율주행 기술은 이미 사람의 개입이 필요없는 수준까지 도달했지만, 관련 법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음
 - 국토부는 지난해 '자율주행 사고가 났을 때 처리 기준'을 국토부 내부 매뉴얼화 하였고, 이번에는 이를 구체화해 훈령으로 만들 계획

< 자료사진 >



- 해당 훈령은 '레벨3' 이상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하며, 레벨3 자율주행은 고속도로 같은 특정 구간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전하는 수준을 뜻함
 - 레벨2는 운전 통제권이 사람에게 있지만 레벨3부터는 시스템에 넘어가기 때문에, 국내 법에서는 레벨2는 운전보조 기능이라 정의하고 레벨3부터 진정한 자율주행차로 보는 상황
- 자동차 업계에서는 한국에서 레벨3 자율주행 차량이 나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불투명한 사고 책임 소재를 지목
 - 자동차업계 관계자, “사고 처리 기준이 명확하게 나온다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이를 반영해 레벨3 자율주행차를 내놓을 수 있을 것”이라며 “레벨3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앞당겨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”고 언급

출처 : 동아일보, 자율주행차 사고때 누가 책임? 연내 기준 만든다 (2024.5.27.)

국토교통부, UAM 상용화 본격 준비 위한 글로벌 협력

- 국토교통부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의 기체 제작사 아처의 니컬 고엘 최고사업총괄책임자(CCO), 카카오모빌리티의 최우열 부사장과 만나 한국 정부의 UAM 상용화 및 실증사업(그랜드챌린지)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
 - 아처사는 카카오모빌리티, LGU+, GS건설로 구성된 'UAM Future팀 컨소시엄'에 UAM 실증사업 기체사로 참여하는 미국 기업으로, 실증사업 참여를 위한 MOU 체결과 향후 상용화 협의를 위해 방한
- 국토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증사업(그랜드챌린지)을 통해 UAM의 안전성을 검증하고, '25년 말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초 상용화한 이후 '26년부터 전국으로 UAM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
 - 특히, 한국의 그랜드챌린지는 세계 최초로 5G 통신망을 활용한 교통관리 체계 구축에 도전하며, 기체 운항 및 교통관리, 버티포트 운영 등 실제 UAM 운항에 필요한 모든 요소의 통합운영 능력을 실증할 예정
- 백원국 2차관, "UAM 기체 분야에서 세계 선도 기업인 아처사 기체의 통합운영 실증 장소로 한국을 선택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"며, "정부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술력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"이라고 밝힘
 - 니컬 고엘 CCO, "UAM 상용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한 추진 의지가 매우 인상 깊다"며, "여러 유수의 기체가 참여하는 실증사업에 아처도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고 앞으로도 UAM 상용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"고 언급
- 국토교통부, "UAM 상용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"이라고 밝힘

출처 : 국토교통부 보도자료, 국토교통부, UAM 상용화 본격 준비 위한 글로벌 협력 (2024.5.29.)

경찰청, 강릉시와 손잡고 '실시간 신호정보 제공사업' 본격 추진

- 경찰청, 13일 강릉시청에서 강릉시와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사업과 2026년 강릉 지능형 교통체계(ITS)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
 - 이날 협약식에는 김학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, 김홍규 강릉시장이 참석한 가운데, 양 기관은 '실시간 신호정보 제공사업' 및 '2026 강릉 ITS 세계총회'와 관련하여 지능형 교통체계(ITS) 발전과 도시교통 분야 업무·교류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

< 경찰청 로고 >



- 경찰청은 강릉시와 함께 강릉시 전역에 '실시간 신호정보 수집·제공 시스템'을 구축하여, 올해 10월부터 강릉시 어디서나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강릉시민 및 방문객에게 실시간 신호정보를 제공할 예정
 - 또한, 위 시스템으로 강릉시에서 2026년 개최 예정인 대규모 국제행사(ITS 세계총회)에서 실시간 신호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
- 경찰청 김학관 생활안전교통국장, “디지털화된 신호정보는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가 운행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”라며
 - “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일상에 안전한 미래 모빌리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대비할 계획”이라고 언급

출처 : 경찰청 보도자료, '최첨단 자율주행이 눈앞에... 경찰청, 강릉시와 손잡고 '실시간 신호정보 제공사업' 본격 추진 (2024.6.13.)

보행자, 화물차·이륜차 안전 강화로 사망자 줄인다

- 정부, 5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」을 발표
 - '23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,551명었고, 이는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'91년 대비 1/5 수준이며, 전년 대비 6.7% 감소한 수준
 -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(28위/38개국, '21년 기준)에 그치고 있음

<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(1991~2023) >



<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(1991-2023) >

- 정부는 보행자·고령자 안전, 화물차·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「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」을 수립
 - (보행자)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(229대→400대)하고,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(버스 등 50대)을 추진
 - (화물차·이륜차) 바퀴 이탈 등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(5톤 이상)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,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
 - (버스·택시)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(과태료 50만 원), 대열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(3회 이상 적발 시 감차)할 계획
 - (도로안전)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고 잦은 곳(400개소), 위험도로(141개소)를 개선하고, AI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
 - (안전의식)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할 계획

출처 : 국토교통부 보도자료, 보행자, 화물차·이륜차 안전 강화로 사망자 줄인다 (2024.5.20.)

성남시,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위해 전문기업 3곳과 업무협약

- 성남시, 14일 모빌리티 서비스 전문기업 3곳과 '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'을 체결
 - 이번 협약은 성남시가 작년 국토교통부 주관 '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' 공모 선정 후 성남시 관내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를 본격 도입할 수 있는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됨
 - 협약에 따라 향후 2년간 사업비 32억 원을 들여 △성남형 통합모빌리티(MaaS, Mobility as a Service)플랫폼 △지역 맞춤형 모빌리티 허브 △관용·제휴 차량 주민 개방형 공유 서비스 △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△자율주행 셔틀 △자율주행 차량에 주행 정보를 제공하는 라이더 인프라 등을 도입할 예정

〈 성남시청 전경 〉



- 또한, 성남종합운동장에 지역 맞춤형 모빌리티 허브센터를 구축해 공유 차량 서비스, 스마트 주차 시스템,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도입하고, 성남형 통합모빌리티 플랫폼을 활용해 교통환경 개선 및 시민 편의성을 높일 계획
- 신상진 성남시장, "이번 협약으로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성남시가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첨단 서비스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다"고 밝힘

출처 : KPI뉴스, 성남시,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위해 전문기업 3곳과 업무협약 (2024.6.14.)

내년도 상용화 목표 UAM 인프라 구축 본격화...이착륙장 입지 검토 착수

- 도심항공교통(UAM, Urban Air Mobility)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, UAM이 이착륙하는 핵심 인프라인 '버티포트' 입지를 위한 연구가 이뤄질 전망
 - 이 용역은 제주도 내 UAM 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,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위해 시행됨
 - 또한 제주 UAM 선행연구 용역 내용을 구체화하고, 기초조사 및 입지분석을 통해 입지 최적지를 찾는 작업도 진행할 예정

< 버티포트 조감도 (출처: 제주의소리) >



- 제주도는 '제주형 관광 도심항공교통' 밑그림을 그리고, 2025년부터 국내 최초로 관광UAM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음
 - 이번 용역 과정에서는 제주공항, 중문ICC, 성산항을 버티포트 입지 우선검토 대상으로 두고 △주변환경 및 타 시설 운영환경 분석 △지역개발·도시계획, 연계 교통 분석 △후보지별 부지확보 용이성 조사 △장애물, 공역 및 항로 분석 등을 실시할 예정
- 용역을 통해 UAM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·경제적 분석과 제주의 지역적·환경적 특색을 고려한 운영여건을 추가로 검토하게 됨
 - 특히 미래 UAM 시장 변화에 따른 상용화 추진방안을 제시해 나간다는 계획

출처 : 제주의소리, '내년도 상용화 목표' UAM 인프라 구축 본격화...이착륙장 입지 검토 착수 (2024.6.2.)

KTL, 헝가리 국가드론협약체와 미래항공 모빌리티 시험평가 '맞손'

- 한국산업기술시험원(KTL), 헝가리 국가드론협약체 주도 기관인 세체니 이스트반 대학교와 미래항공 모빌리티 시험평가 기술 교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힘
 - 이번 협약은 2022년부터 정부(산업통상자원부)가 실시하고 KTL이 주관하는 특수목적 유·무인 드론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의 일환으로 성사
 - 특수목적 유·무인 드론이란, 자체 중량 150kg 초과, 3,175kg 이하의 중대형급 드론이며, 유형과 형태는 군사·재난·의료·화물 등 드론의 응용분야에 따라 다름

〈 기술 교류 업무 협약식 〉



- 최근 드론을 포함한 국내 항공·방산의 주요 수출국으로 동유럽 지역이 부상하고 있으며, 그중에서도 헝가리는 항공 수출 유망 국가로 최근 드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중
 - KTL은 세체니 이스트반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항공분야 해외 진출의 지원 기반을 마련할 계획
 -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▲첨단 항공모빌리티 및 드론을 포함한 항공우주 시험과 관련된 기술교류 ▲미래항공 시험인증 기준 정보 교환 ▲AAM 및 드론 관련 정보교환 ▲국제 세미나 등 행사 공동 개최 및 인력 교류 등임
- KTL 송준광 미래융합기술본부장, "이번 협약을 통해서 우수한 국내 미래항공 시험평가 역량을 널리 알리고 각국의 미래항공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"고 밝힘

출처 : 뉴시스, KTL, 헝가리 국가드론협약체와 미래항공 모빌리티 시험평가 '맞손' (2024.6.18.)

카카오모빌리티, '한국형 UAM 서비스' 상용화 추진

- 카카오모빌리티, 미국의 글로벌 도심항공교통(UAM) 기체 제조사인 아처와 손잡고 한국형 UAM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협력한다고 밝힘
 - 카카오모빌리티와 아처는 지난 28일 판교 사옥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장성욱 미래이동연구소장, 아처의 니컬 고엘 최고사업총괄책임자(CCO)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
 - 아처는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인증 가능성이 높은 제작사 중 하나이며, 국토교통부 주관의 민관협동 실증사업인 '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'에서도 빠른 인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
< 카카오모빌리티와 아처의 협약식 (출처: 카카오모빌리티) >



- 양사는 엘지유플러스·지에스건설 등이 참여하는 'UAM 퓨처팀' 컨소시엄에 합류하여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을 위한 협업에 나설 계획
- 또한, 양사는 올해 말로 예정된 1단계 실증시험에서 UAM 기체를 활용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
 - 서비스 상용화 실현을 위해 4분기 내 아처 항공기의 공개 시범 비행을 추진하고, UAM 기체와 서비스 운영에 대한 안전·인증 기준 개발도 함께 검토할 계획

출처 : ZDNET Korea, 카카오모빌리티, '한국형 UAM 서비스' 상용화 추진 (2024.5.31.)

KT-안양시, 자율주행버스 '주야로' 시범 운영...모빌리티 AX기술 활용

- KT, 27일 안양시와 함께 모빌리티 AX(AI 전환) 기술과 서비스 노하우를 활용한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
 - 시범사업은 지난달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됐으며 자율주행버스 이름은 '주야로'로 선정
 - 주야로는 11개 정류장, 왕복 6.8km 구간의 주간노선과 22개 정류장, 왕복 14.4km 구간의 야간노선으로 운영되고 있으며, 자율주행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8월 14일까지 누구나 무료로 체험 가능

< '주야로' 운전 모습 (출처: KT) >



- 차량 내부에는 안전관리자와 승객을 위한 정보 표시 장치 및 비상벨이 설치되었고, 안전관리자용 앱을 통해 보행자 무단횡단, 도로 위 돌발상황 같은 위험 정보를 수신할 수 있음
- 최강림 KT 모빌리티사업단장, "KT는 오랜 기간 AI 등 보유 기술을 활용해 모빌리티 AX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사업자로, 안양시와의 협력은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험하는 지자체 대중교통으로 매우 의미가 깊다"며
 - "안양시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많은 지자체 및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똑똑한 도로와 미래 모빌리티를 이끌도록 계속해서 기술과 서비스를 발전시키겠다"고 밝힘

출처 : TechM, KT-안양시, 자율주행버스 '주야로' 시범 운영...모빌리티 AX기술 활용 (2024.5.27.)